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농협



제1245호 (2023년 8월 3일 목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LH, 반카르텔 본부 설치 '철근 누락' 관련업체 수사의뢰



'철골 누락 아파트'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한준 LH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설계·감리업체는 한번 적발로 퇴출하는 '원스 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LH는 건설 이권 카르텔과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해 카르텔

LH 조직 내부적으로는 감리용역 전담부서를 개편하고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 단계별로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의무도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기록검증, 디지털 시공 확인 체계로 전환해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 관련 자재 외에는 직접 구매자재 적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관 차단을 위해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업무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LH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무량판 구조 설계오류와 시공누락에 따른 부실시공을 문제 삼아 오는 4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전관업체 간 담합 의혹에 대해선 정황이 의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와 외부 제보, 언론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가 발생하면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입찰 담합징후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공정위로 입찰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부실시공 문제가 제기된 15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와 관련해선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3개 지구는 보강이 완료됐으며, 8개 지구는 이달 말 보강이 완료될 예정이다. 입주가 완료된 4개 지구는 다음 달 말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LH는 입주민이 원하는 점검업체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겸증된 공법으로 보강하는 한편 보강 과정에 LH가 입회해 정밀시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권동준 기자

###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건설카르텔 척결할 것”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와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강남구 논현동 LH 서율지역본부에서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에 건설안전을 제대로 확립 못 하고 설계·감리 등 LH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못 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

이 철폐될 때까지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행위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맡았다.

LH는 발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대재해와 건설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권동준 기자

## 잼버리 야영장 온열질환자 400여명 발생…조직위 “큰 차질 없어”

### 야영지 내 병상 150개까지 확대…냉방시설·셔틀버스 운영 개선

=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첫날 온열질환자가 400여명 발생했다.

최장행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2일 잼버리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일)까지 잼버리 야영지 내에서 807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00명 이상이 온열질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환자에 관해) 큰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면서 “잼버리 소방서가 개설돼 운영 중이고, 119구급차 등을 통해 환자들을 잼버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경증 환자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열질환자 발생 대응책에 대해 “우리도 세계연맹과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폭염 관련 회의를 했다”면서 “온 열질환자 예방을 위한 물 공급, 염분 제



발언하는 최장행 사무총장

공, 과정활동 조정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병상을 50여개에서 150개까지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세계잼버리가 열리는 부안에는 현재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며, 전날 밤에도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 최민성 기자

## 해병 1사단장, 채 상병 사망에 “모든 책임지겠다”…사퇴 의사



추모하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달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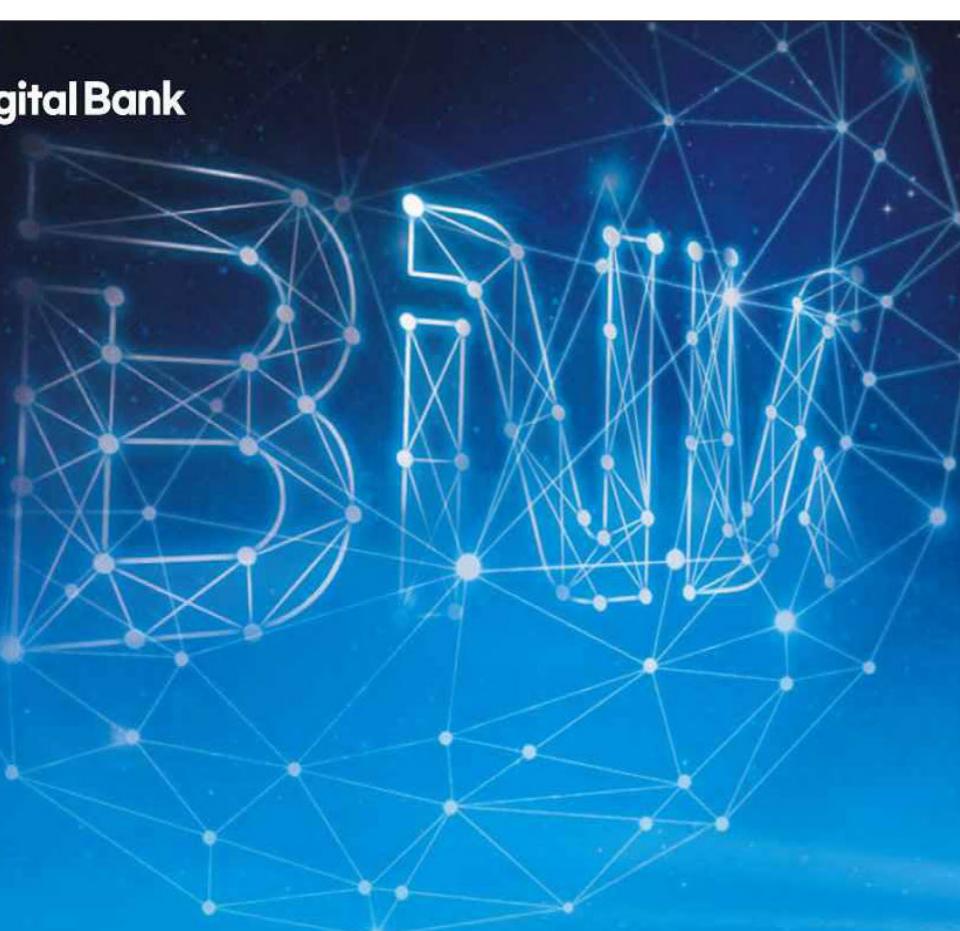
사실상 본인이 사고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사령관은 임 사단장의 발언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는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해병대는 지난주까지 사고 경위를 자체 조사했으며, 조만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 송원기 기자

1일 해병대 관계자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은 지난



# 고객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

내일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디지털금융  
지역을 키우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새로운 세상을 향한 당신의 여정에  
BNK경남은행이 함께 합니다

함께 꿈을, 함께 내일을  
Dream Together, Tomorrow Together

**BNK** 경남은행

##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도입…대기실엔 CCTV

### 교사와 전화·면담하려면 앱으로 예약해야…소송지원도 강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만 구상권을 청구 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 도 강화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 시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11월께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유·초·중·고 중 원하는 학교라면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앱을 통한 민원을 1차로 분류하는 주체는 교장 혹은 교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 시스템이 악성 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북받치거나 옥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퀄링 다운을 할 수 있는 숙련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와의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조 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이 체계를 통해 교사에게 들어오는 민원을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

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도 시범 운영한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원할 때는 민원인 대기실에서 해야 한다. 이 역시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의 신규 위클래스(Wee class·교내 상담기구) 지정 비율을 높이고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한다. 마음 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사업도 현행 4개 거점 병원에서 11개로 확대해 문제행동 학생의 심리 치료 연계를 돋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심리 정서적 지원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전문의랑 협의해 권위적 치료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권위적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인터뷰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 상대 손배소 조정 회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양의 어

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이 기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다.

/ 백소윤 기자

### 포항~수서 SRT 노선면허 발급…9월부터 운행 예정

경북 포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생활권 시대가 열린다.

2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일

속철도가 9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열차 환승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민이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 강남까지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다가왔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의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원 기자

## 방통위, 상업광고한 TBS에 과태료·과징금 2천3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TBS가 금지된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총 2천만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TBS에 대해 총 2천303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 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 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 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내보냈다.

방통위는 ‘가히’의 경우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성 캠페인으로 보기 어렵고, ‘동아전람’ 역시 TBS가 주최·주관·후원한 사실이 없는 박람회를 홍보한 것이어서 협찬고지 방송이 아닌 상업광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BS는 상업광고 방송이 금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송출은 전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상업광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BS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는데,

TBS가 해당 광고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된 내용으로 제출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TBS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 TBS 상업광고 건은 지난해 10월 5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이지만, 그간 상임위원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다가 약 10개월 만인 이날 의결 됐다.

/ 김석호 기자

## 경기부동산포털 내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

건물명, 도로명, 지번 등을 입력하여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세요

「이사 갈 집이 깡통 전(월)세가  
의심된다면 검색하세요!」

#### 이용방법

- 사용자가 지도를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정보)”가 표시되며,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 전·후 할 일 및 깡통전세 유형정보 제공
-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바로가기 연결 (<https://consult.kapanet.or.kr>)



## 인천시의회, '철근 누락' LH 가정동 임대아파트 현장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밸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해당 아파트를 현장조사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7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시공 중인 51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조사와 종합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견단의 신축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밸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정동 임대 아파트 등 전국 15개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견단 아파트 신축 공사장

시의회 건교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시공 현장을 방문하기로 보호와 안전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

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LH 밸주 15개 단지는 이 철근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종래 시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은 "LH 자체 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만큼 LH가 최근 3년간 인천에서 건설했거나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2020년 중구 영종도와 2021년 동구 송림동 등지에서 LH 아파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성윤 기자



김영호 신임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영호 통일장관 첫 대외 일정은

#### 남북자·국군포로 단체 면담

남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를 직접 쟁기로 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관련 민간단체와 면담을 첫 대외 일정으로 잡았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이 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장관실에서 남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와 억류자 가족을 면담한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남북자가족모임, 물망초의 대표와 2013년 북한에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의 형 김경삼 씨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 장관의 취임 직

후 초청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이번 면담은 장관 직속의 남북자 대책반 신설 추진에 이어 남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는 남북 대화·교류·협력분야 위

주로 인력을 약 15% 줄이되 남북자, 국군포로, 억류자를 담당하는 과장급 남북자 대책반을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고 통일부와 장관의 주요 의제로 쟁길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식에서 "이산가족, 남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에게 가하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인권의 실현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창의적인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현충원 참배 후 취재 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느끼게 되는 것은 남북자 문제, 억류자, 국군포로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권정석 기자

## '50억 특검론'에 망치로 휴대폰 부순 박영수…내일 구속기로

### 野 특검 목소리 높인 날 측근 만나고 휴대전화 폐기 정황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자 증거 인멸 및 말 맞추기에 나선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증거 인멸 과정에서 망치를 사용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같은 의도적 증거인멸 정황을 제시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 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 무렵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이날 공범인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만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받은 변협 회장 선거자금 등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런 논의 직후 박 전 특검

이 기존에 쓴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사이에 증거인멸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강력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휴대전화를 폐기 한 시점으로 올해 2월16일 무렵을 지목한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은 이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3월30일이었다.

박 전 특검이 일찌감치 '행동'에 나선 배경으로 검찰은 애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론을 지목했다.

정치권의 50억 클럽 특검론은 2월8일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재점화했다.

야권에서는 곽 전 의원 등 고위 법조인들이 연루된 이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찰이 지목한 2월16일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 전 특검이 이러한 상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뒤 자신에 대한 재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 송진영 기자

## 경남은행서 562억 횡령사고…검찰 압수수색·금감원 검사

### 약 15년간 PF대출 담당하며 상환자금 가족 계좌 이체·서류 위조 등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 넘는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동시다발적인 수사·검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50)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금감원은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A씨의

그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이씨는 2016~2017년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입이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원을 빼돌리고,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A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를 벌여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천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날인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현재까지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검찰도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입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 크다"고 설명했다.

/ 송원기 기자

## 건설노조 "35도 폭염에도 건설현장은 휴식없이 일해"

### 설문조사서 82% "무더위 시간대에도 쉬라는 지시 안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은 오후 2~5시에도 실외에서 휴식없이 일을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형틀 목수, 철근, 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 노동자 3천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2천424명) 중 1천981명(81.7%)이 '별도 중단 지시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지난해에는 같은 질문에 응답자의 58.5%가 '별도 중단 없이 일한다'고 답했다며 올해 작업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지만 이를 지켜 규칙적으로 쉬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54.7%는 '재량껏 쉬고 있다'고 했고

19.9%는 '쉬지 않고 봄·가을처럼 일한다'고 응답했다.

폭염기에 겪는 증상을 골라달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복수응답) 중 74.0%가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두통(37.9%), 메스꺼움(35.2%), 근육경련(32.1%) 등이 뒤를 이었고 의식 저하와 구토도 각각 17.3%, 15.7%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55.0%는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 있다고 답했다.

/ 김유정 기자

**사람을 위해 금융 합니다**

**우체국금융**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 강릉노동·시민단체, 검찰 양회동 분신 CCTV 자료 유출 규탄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 강릉노동인권 정당 관계자들이 2일 춘천지방경찰청 강릉지청의 폐쇄회로(CC)TV 자료 유출을

### 검찰 “경찰 수사 요청 외에 외부 기관 유출 사실 없어”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자료는 양회동 열사와 관련된 수사 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검찰의 CCTV 자료가 불법으로 언론에 전달되고, 언론은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릉지청에서 CCTV를 유출한 인물과 책임자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CCTV 자료 관리 책임자인 춘천지방경찰청 강릉지청장을 공무상 비밀의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강릉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의 수사상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CCTV 영상을 제공한 외에는 언론 등 외부 기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가 CCTV 영상을 언론에 유출한 것처럼 허위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지난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사망했다. / 백경원 기자



마약 조직 검거 브리핑하는 진종우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고교생 낸 마약 유통조직 적발 가상화폐로 170억 자금 세탁

고등학생까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조직은 마약 판매대금 170억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자금 세탁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액상 대마, 합성 대마, 리서치산 디에틸아마이드(LSD) 등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20대 A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상습 구매자 등 14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직은 베트남 등에서 주문한 화장품이나 컵라면 등에 마약을 끼워 넣어 국내로 밀수한 후 대마나 합성 대마를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트위터 등에서 구매자를 모집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 판매 광고 채널 5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3천여 명을 끌어모았다. 거래가 성사되면 마약 운반책이 서울, 경상, 전라 등 전국에 있는 원룸이나 주택이 일대 전기함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회원인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마약 운반책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았으며, 고등학생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에는 광고 글을 보고 마약을 구매했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운반책으로 가담했는데, 월 최소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또, 다른 마약 판매조직 최소 5곳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판매대금 170억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바꿔주는 자금 세탁 역할을 했다.

마약 구매자는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속칭 대포통장에 보낸 현금을 이 조직이 가상화폐로 바꾼 후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하면, 마약 판매상이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 조직은 자금 세탁을 통해 수수료 10%를 수익금으로 챙겼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총책 A씨는 마약 판매와 자금 세탁을 통해 번 돈으로 서울 유명 카페거리에 있는 카페와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고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유흥비로 하루 2천500만 원 정도를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조직이 마약 판매로 14억원, 자금 세탁 수수료로 17억원 등 총 31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했으며, 범죄수익금 31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하고 현금과 귀금속 8천6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 전국 원룸과 79곳에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져 있던 마약을 회수하고 A씨 등이 거주하던 서울 오피스텔에 보관돼 있던 시가 2억원 상당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판매조직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며 해외 마약 판매책, 자금 세탁 의뢰 판매상 등을 추적하는 등 단속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 임동석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 오토바이 야간 소음 협동단속



울릉 사고 현장

울릉도의 한 유아풀장에서 놀던 초등 학생이 물을 끌어 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2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2분께 경북 울릉군 북면에 있는 한 유아풀장에서 초등학생인 10대 A 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는 지름 19m, 수심 37cm인 원형풀장 가운데에 있는 미끄럼틀과 워터버켓 등 물놀이 시설 아래에서 발생했다.

물놀이 시설 아래에는 물을 워터버켓으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와 펌프 등이 있다.

경찰은 유아풀장 시설 관계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김승진 기자

사고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A군은 물놀이 시설 아래쪽에 있는 직경 13cm의 취수구에 팔이 끼인 상태에서 발견됐다. 물을 빨아들이다가 보니 취수구 주변은 수압이 센 상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취수구에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몸이 수면 아래에 잠겼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 A군은 가족과 함께 울릉도로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풀장 시설 관계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김승진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시, 자치구, 경찰과 오토바이 야간 소음 협동단속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소월로는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에는 이륜차 굉음으로 수면까지 방해해 서울시 등에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위는 5, 6월에도 주·야간 두 차례에 걸쳐 소월로에서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협동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오후 8~10시 이뤄졌으며 이륜차 소음기와 등화장치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 5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 신재일 기자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해

**K 관광의 랜드마크**

**K 금융의 랜드마크**

**대한민국 산업의 신성장 동력, K-관광  
KDB산업은행이 한국방문의 해를 응원합니다**

**KDB산업은행**

## 트럼프, 대선뒤집기·선거사기유포혐의 기소돼…“정치박해” 반발

특검, 미국에 대한 사기 등 4개 혐의 적용…“패배에도 권력 유지하려해”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인 1·6 사태와 관련해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및 선거사기 유포 등 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미국 민주주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초유의 사건이라는 비난을 받는 1·6사태의 배후로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목된 것이다.

연방 대陪审은 1일(현지시간)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선거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6명의 공모자 역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연방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선거 패배에도, 피고는 권력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지난 2020년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뒤에도 공화당 당원들은 전국적인 분노를 야기하는 거짓말을 퍼트렸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잭 스미스 특검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증거들이 법원에서 검증받고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자행한 의회 난입 및 만연한 대선 사기 주장과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오랜 기간 수사해 왔다.

특히 스미스 특검은 의회 난입 사태를 전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일찌감치 모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측근들을 차례로 소환하며 수사의 그물망을 좁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해 두 차례 기소된 데 이어 연방 차원에서 세 번째로 기소됐다.

특히 대선 결과 전복 시도 및 미국인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한층 심각한 정치적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직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법을 준수해 왔으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표적 수사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검찰권의 정치 무기화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를 원색 비난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스미스 특검이 이날 오후 5시 자신을 기소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기밀 정보의 유출 및 불법 보유, 수사 대상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 37건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되며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연방 검찰은 최근에는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퍼니얼스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혐의로 뉴욕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유명 패션 칼럼니스트 출신 E. 진 캐럴이 제기한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트럼프 일가의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는 등 여러 건의 사법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 송원기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 “중국,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고 군사 교육국으로 부상”

홍콩매체 “중국, 영향력 확대 위해 아프리카에 군사훈련 제공”

끌었고, 1993년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로부터 독립했다.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불리는 에리트레아는 대에티오피아 독립전쟁 영웅인 아페웨르키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최고 군사 교육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현지 국가들에 중국의 군사대학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면서 중국 군사대학의 ‘아프리카 동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자신이 1967년 중국에서 받았던 군사 훈련을 회고하며 “에리트레아 국민들은 중국인들이 에리트레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제공한 귀중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훈련 받은 아페웨르키 대통령은 에리트레아의 30년 독립 운동을 이 난률라 연구원은 아프리카에 있는 군기지나 시설, 현지 주둔 군 인사의 수에서 여전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이 중국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고, 서방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진행하는 군사 교육 프로그램도 중국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 최병준 기자

## 태풍 ‘카누’에 오키나와 21만3천 가구 정전…1명 사망

제6호 태풍 ‘카누’의 영향권에 든 일본 오키나와에서 2일 오전 전체 가구의 34%인 21만3천870호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오키나와 섬 북부 오기미 마을에서는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이 사망했고, 태

풍의 영향으로 부상자도 다수 나왔다. 이날 오키나와현 나하·미야코·신이시 가기 공항에서 이착륙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모두 결항했고, 공항 출입도 금지됐다. 높은 파도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제철을 맞은 오키나와산 망고의 출하 작업도 중단됐다. 대형 태풍인 카누는 오키나와 섬 남서쪽 해상을 시속 10km의 속도로 지나고 있다. 중심 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이며,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50m다. 이날 오키나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70m에 이르는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고 높이가 12m에 달하는 파도가 일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3일 오전 6시까지 예상 강수량은 오키나와 지역이 최대 200mm, 가고시마현 아마미 제도가 최대 120mm다.

/ 양희진 기자



**신한알파로  
자산이  
알파만파**



## 태국 중앙은행 “정부구성 더 지연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 총선 후 3개월째 총리 선출 안갯속…재계도 악영향 우려



총리 선출을 둘러싼 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국 중앙은행(BOT)이 정부 구성 지연이 태국 경제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차야와디 차이아난 BOT 부총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 고물가와 더불어 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구성이 더 지연되면 예산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구성이 너무 늦어지면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훈센 반대파 배제’ 캄보디아 총선서 무효표 무더기로 나와



온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캄보디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

캄보디아가 장기 집권 중인 훈센(70) 총리 반대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무효표가 50만장 가까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면 이번 총선에는 전체 유권자 971만여명의 84.2%에 해당하는 817만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무효표는 총투표수의 5.4%인 44만장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3일 실시된 캄보디아 총선은 훈센 반대세력인 촛불당(CP)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졌다.

CP는 2017년 11월에 반역 혐의로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국당(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정당이다.

훈센이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이듬해 총선에서 전체 의석 125석을 챙길 예정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체 의석 125개 중 120개를 차지해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선관위는 오는 4일 정당별 의석수 배분 등 선거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이병진 기자

## 알아서 챙겨주는 투자메이트 신한투자증권 신한알파 3.0

- 다른 증권사의 보유종목도 편하게 관리하고
- 투자자들의 매매 정보도 한눈에

\* 투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기액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국내주식시장에 시 모바일 기준 표준수수료는 0.1891639%(거래금액, 국가별 상이)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 신한투자증권**

# LH 논란에…서울시, SH ‘무량판 아파트’ 9년 전까지 전수조사

## ‘준공 5년’ 아파트 조사 이어 8곳 추가…‘전관예우’도 점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과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문제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그간 준공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2014년 11월 착공해 2017년 준공된 송파구 위례23단지를 포함해 총 8곳이다.

SH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전단 보강 철근 탑재·콘크리트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 등 정밀 조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 할 계획이다.

앞서 SH는 지난달 현재 설계·시공 중이거나 최근 5년 내 준공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곳을 조사한 바 있다. 확인 결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위례23단지 지하주차장

구조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SH는 당시 밝혔다.

이번 조사는 5년을 넘어 SH가 발주한 모든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조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

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수평구조 자체인 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이 직접 슬레이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기 때문에 층 사이가 높고 건설비용과 기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적용한 인천 검단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4월 무너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주민의 우려 속에 민간 아파트로도 불안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SH는 또한 계약 수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절차 전반에서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는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사 와의 ‘이원 카르텔’과 이들 사이의 ‘전관예우’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SH 관계자는 “협력사에 전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제도가 있어 과거 불거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혹시 모를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 권도훈 기자



창착 전



창착 후

물막이판 장착 전후 사진

##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서울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도 건의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지하 주차장 입구의 물막이판 설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단, 대상지

입지 여건을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침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제외 할 수 있다.

시는 필요시 벗물 유입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출입구에 방지턱과 벗물 드레인(배수관)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경사지에 있거나 규모가 큰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모

아우는 ‘빗물 연못’ 조성을 권장한다.

시는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국토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물막이설비)에 방지지구·자연재해위험지구에만 물막이판을 설치하게 돼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에 설치하도록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 호우가 내릴 때는 벗물이 순식간에 지하 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지하 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보·설치하는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주희 기자

## 휴가철 “카톡” 알림서 해방 채팅방 숨기기 시범 도입

카카오톡(카톡)에 활동하지 않는 채팅방에 대한 관리 기능이 생긴다.

카카오[035720]는 2일 카톡 업데이트를 통해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실험실에 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 시범 도입된 서비스는 활동하지는 않지만 나가지 않은 일대일 채팅방과 그룹 채팅방을 보관하고 숨길 수 있는 채팅방 보관함 기능이다.

숨겨진 채팅방은 알림이 꺼지고, 카톡 애플리케이션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를 알려주는 ‘메시지 카운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카톡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한 사용자는 실험실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채팅방을 길게 누르거나 화면을 좌우로 넘겨 ‘보관’을 선택하면 채팅방이 보관함으로 이동한다.

채팅방 보관함은 채팅 템 상단에 표기되고 보관함 내 채팅방은 자동으로 알림이 꺼지는 방식이다.

보관된 채팅방으로 온 메시지는 회색 숫자로 보관함에 표시되며 카톡 전체 배지카운트에는 메시지 숫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휴가를 떠나 카톡 알림은 꺼놨으나 추가되는 배지카운트로 불편을 겪었거나 활동하지 않는 채팅방에서 쌓이는 메시지 알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사용자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카카오는 소개했다.

제작자는 알림을 꺼냈으나 추

아울러 이번 업데이트로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정식 기능으로 반영됐다. 이 기능은 지난 5월 실험실에 도입된 이후 3주간 약 200만명이 활성화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는 약 3개월간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이번 업데이트에 정식 기능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용한 채팅방과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사용자의 대화 스트레스나 부담을 줄이고 일상 속 편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카톡이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오민수 기자



##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증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범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1%,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실사필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 속초시, 관광수산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대금 일부 환급



강원 속초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은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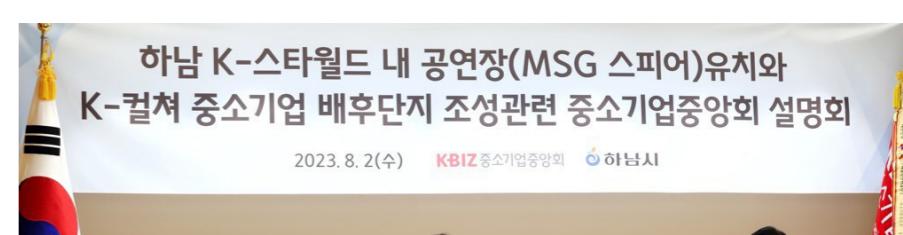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린다. 국내산 수산물(국내산 원물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 포함) 대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수입 수산물과 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제외한다. 환급액은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은형미 기자

## “K-스타월드 추진 지원”…중기중앙회, 하남시와 사업 설명회



2023. 8. 2(수) KBIZ 중소기업중앙회

하남시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하남 K-스타월드 내 공연장 유치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설명회’를 열고 하남시의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미사섬에 K-POP 공연장과 영화 촬영장,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이용한 마블시티 등을 민간 자본을 활용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지난 3월 중기중앙회와 하남시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열렸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계획 등을 밝혔다.

이 시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 벨트 규정은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을 끌어내면서 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K-

스타월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박진숙 기자

# “폭염도 재난”…서울시, 피해 최소화·취약층 보호 총력전

## 복지시설에 냉방비 7억 추가지원…쪽방촌은 밤더위 대피소·쿨링포그 확대

서울시는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 재난 대응 수준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피해 예방에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7억3천5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760곳이며 시설면적과 정원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7~8월 냉방비를 보조한다. 추후 폭염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쪽방 주민을 위한 ‘밤더위 대피소’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에는 총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빈자리가 있으면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쪽방 주민이 7~8월 목욕과 잠자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밤더위 대피소는 ‘쪽방촌 동행목욕탕’ 7곳 중 3곳이 지정됐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과 만난 오세훈 시장

으며 이달 들어 26일까지 412명의 쪽방 주민이 찾았다.

현재 쪽방촌 중 영등포 1기, 돈의동 4기, 남대문 1기가 각각 설치된 안개 분사기(쿨링포그)는 동자동 쪽방촌에도 2기를 추가 설치한다. 안개 분사기가 작동하면 주위 온도를 3~5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쪽방촌 복도에 설치된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는 곳에 거주해 불편을 겪는 가구

를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이동형(창문형) 미니 에어컨도 설치할 예정이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거리 순찰도 강화한다.

혹서기 응급구호반 51개 조 120명이 하루 4회 이상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생수 등 구호품을 나눠주고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서비스와 연계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쉼터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폭염이 이어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난대피명령 발령도 검토한다.

쪽방촌에는 특별대책반 10개 조 20명이 하루 2회 이상 순찰 활동을 하며 쪽방 간호사가 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자 150명의 거주지를 방문해 수시로 관리한다.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이 폭염을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쉼터는 약 4천200곳을 9월까지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취약 어르신 3만8천71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 돌봄서비스 전문인력 3천279명이 매일 또는 격일로 안부를 확인한다.

취약계층에는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62만원), 의료비(100만원 이내), 냉방용품(쿨링포그·냉풍기 등 10만원 이내 현물)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도 연계한다.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120)로 연락하면 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에 취약계층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특히 8월 한 달은 폭염 재난에 상시 대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희성 기자



순천생태문화교육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노광규 순천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로컬콘텐츠 페스타 홍보관 부스를 둘러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순천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 “호남과 협력해 대한민국 바꾸겠다”

#### 로컬콘텐츠 페스타·정원박람회 참석…다섯번째 호남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3년 로컬콘텐츠 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봤다.

김 지사는의 호남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다섯 번째이다.

지난해 10월 전남도와 상생발전 협약식, 11월 광주 로컬콘텐츠 페스타, 올해 1월과 5월 각각 전북도, 광주시와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은 두 달 만의 호남 일정이다.

이어진 토크 콘서트에서는 “호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며 “경기도에 변화시켜서, 또 호남과 협력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들과 협력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현정 기자

## 인천시, 의료관광객 유치 기지개…카자흐스탄서 물꼬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의료관광 흥보센터를 열고 현지 의료관광객 50명을 유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의료관광객들은 이날부터

2개월간 순차적으로 입국해 인천에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유명 관광지를 여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의 이번 의료관광객 유치에는 알마티 직항노선을 운항하는 아시아나항공과 인천관광공사(하버파크호텔)가 함께 공표·숙박비 할인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 알마티에 인천의 전문병원과 진료과목, 의료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센터를 열었다.

시는 올해 의료관광객 1만3천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2019년 2만4천86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0년 5천279명, 2021년 8천570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약 1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들과 협력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들과 협력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들과 협력해 환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조사…방제 계획 수립 예정



경기 용인시는 외래해충 방제 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11일까지 돌발 외래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돌발 외래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와 같이 외국에서 들어와 국내에 정착한 후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해충을 의미하며, 돌발해충이라고도 부른다.

돌발해충은 농작물과 농경지 주변 나무의 즙액을 빨아 먹거나, 분비물을 배출해 해를 입히고 외관상 혐오감을 준다.

이번 조사 대상 작물은 감, 블루베리, 복숭아, 밤, 사과, 배, 매실, 포도, 살구, 대추, 인삼, 콩 등이다. 시는 과거 돌발해충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주변 산림, 휴경지, 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한 곳당 대상 작물 10그루 이상에서 성충 유무, 피해 가지 수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해충 발생 면적과 발생 정도 등을 파악해 데이터를 ‘국가 농작물 병해충시스템’에 입력해 방제 시기와 범위 설정, 비용 산정 등을 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돌발해충이 곳곳에서 늘어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발생 상황을 정밀하게 조사해 방제 계획을 수립,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2020년부터 매년 돌발 외래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 700여 농가에 5천만원의 방제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김현중 기자

## SH공사 “무량판구조 건축물 9곳 조사 결과 이상 없어”

### ‘사고’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적용방식 조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현재 설계·시공 중이거나 최근 5년 내 준공한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구조 건설자재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

SH공사는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지자 지하주차장에 무량판이 적용된 건축물 총 9곳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 이상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 9곳은 5년 내 준공한 21개 중 8개 단지와 설계·공사가 진행 중인 12곳 중 1곳이다. 조사 결과 최근 5년 내 준공한 단지 8곳은 구조적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보수보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또 설계·공사 중인 현장 1곳은 적정하게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는 과거 준공한 단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 안전진단



무량판구조가 적용된 방화동 행복주택에서 철근 배근을 확인하는 SH공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단보강 철근탐사,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강도 시험 등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현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서울시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방침에 따라 서울형건축비, 서울형감리제도 등을 적용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백년주택’ 품질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민희진 기자

**k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미래를

**기대海**

**K5BC**  
2018 - 2023  
한국해양진흥공사 창립 5주년

놀라운 도약의 지난 5년, 그리고 더 크고 더 높게 성장해  
새해양강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앞으로의 50년을 기대해.



한국해양진흥공사  
2030 미래상

01 총 자산  
20조 원

02 선박 금융  
끌고 1위

03 스마트 해운 물류  
통합 플랫폼 구현

04 ESG 공공부문  
최우수 등급

# 제주 2공항 반대 53.2%, 찬성 41.1%…76.6% “주민투표 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 현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현안에 대해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묻는 말에 52.2%가 ‘현 제주공항 확충’이라고 답했다.

성산에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30.2%였고, 한때 대안으로 거론됐던 정석비행장 활용은 10.3%, 현 제주공항 폐쇄 후 신공항 건설은 2.4%였다. 또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1.1%, 반대한다는 의견은 53.2%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76.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 다’(20.7%)는 의견을 압도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수



제주 지역현안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제주도 자체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가 50.3%, ‘공론조사로 제주도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가 29.9%로 나타났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는 ‘오염수를 투기한다면 제주도 해안이나 수산물이 오염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72.7%가 ‘잘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것으로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연대(38%), 원산지 표시 강화와 방사능 안전성 인증제 시행(24.8%),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19.7%), 수산업·관광업·소상공인 등 피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

원(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회의는 “이번 여론조사로 도민 다수가 여전히 제2공항을 바라지 않고, 이에 더해 찬반과 무관하게 제2공항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었다”며 “주민투표가 민의임은 명확하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뜻을 받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사회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강력한 대응으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 오영훈 지사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연대회의와 제주의 소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제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천 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 광도준 기자



## 미 피츠버그에 ‘포항 무궁화길’ 조성

### 한국전 참전용사 기려

경북 포항시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에 ‘포항 무궁화길’을 만들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7일(현지시간) 피츠버그 노스쇼어 리버프론트파크 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공원에서 포항 무궁화길 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한국전에 참가한 미군 병사 178만명 가운데 서부 펜실베이니아 출신은 40만명이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 무궁화길을 통해 피츠버그시에 포항시를 널리 알리고 두 도시 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 교류를 이어가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신경준 기자

## 개통 5년 사천바다케이블카, 누적 탑승객 300만명 돌파

사천바다케이블카가 개통 5년 만에 누적 탑승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31일 경남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바다케이블카는 2018년 4월에 개통해 23일 만에 탑승객 10만명을 기록했다.

이후 약 350일 만에 탑승객 100만명을

돌파하고 지난 29일 300만명을 기록, 누적 매출액 440억원을 달성하며 견고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는 국내 최초 바다와 산을 모두 오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케이블카로 선로 길이만 243km에 달한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입소문 났지만, 안전성 면에서도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초속 22m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매서운 바닷바람에도 안정적인 탑승환경을 위해 흔들림이 적은 자동 순환 2선식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최신 기술을 모두 합쳐 설계했다.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 대처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

자체 구동 엔진을 장착한 특수 구조차량이 케이블카에 직접 접근해 승객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해상 구조시스템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췄다.

그 결과 ‘2018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 ‘2019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 브랜드’ 대상 등 고객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온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 박현우 기자

하였다. 포항 무궁화길은 한국전 참전용사 희생과 현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약 50m 구간에 무궁화나무를 심은 길이다. 포항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피츠버그 광역 한인회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제이크 폴락 피츠버그 시 부시장은 포항 무궁화길 조성을 기념해 ‘2023년 7월 27일’을 포항의 날로 선포

## 울산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에 7천억 민간투자 추가 유치

### ‘5대 전략과제·13개 핵심 분야’ 특화단지 육성전략도 발표



의에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총 6개 사업단지와 13개 선도기업으로 구성된다.

울산시는 이 중 고려이연, STM 등 기존 주력산업 기업 11개사를 이차전지 소재 선도기업으로 전환하고, 삼성SDI 등 이차전지 선도기업의 국내 최초 첨단 이차전지 생산을 확대해, 현대차 등 전기차 선도기업에 공급·리사이클링하는 ‘전주기 벨류체인 완결형’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5개 전략과제, 13개 핵심 분야, 28개 세부지원사업으로 구성된 첨단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제는 ▲ 전주기 지원 인프라 구축 ▲ 연구개발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 ▲ 복합 협력 지구 조성 ▲ 소재·부품·전지제조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 규제·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특화단지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해 전주기 인프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와 실증센터, 평가·인증센터를 세워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R&D)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고에너지밀도·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기술과 재자원화 기술, 재활용 시스템 등을 개발해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 노지훈 기자

## 대구 군위군 면적 70% 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다

김진열 대구 군위군수는 31일 “올해 말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연계 개발사업 위치와 공간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 군위군 전체 면적 70%에 대해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대구 시와의 협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토지거래와 지가동향에 따라 나머지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상실감을 느낀 군위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협의해 준 흥준표 시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3일 대구시는 편입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급격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 세력 방지 등을 위한 조치라 밝혔으나 군위군의회 등 지역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 양승민 기자



지난 50년간 철강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온 포스코를 앞으로는 친환경 미래소재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

# 2023 대백제전서 무령왕 집중 조명…공주시, 세부 연출 확정

## 개막식서 무령왕 테마 주제공연 선봬…웅진판타지아도 무령왕 일대기 그려

충남 공주시는 '2023 대백제전'에서 선보일 23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연출 및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란 주제로 펼쳐지는 대백제전에서 백제의 중흥을 이끈 한류의 원조로 불리는 무령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개막식에서는 무령왕을 테마로 한 주제공연과 불꽃쇼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축제 주 무대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선보일 대표 프로그램 웅진판타지아도 무령왕의 일대기를 담는다.

시민화합형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는 '백제 흥(興) 나라'를 주제로 무령왕과 백제, 백제유물을 형상화한 무빙 스테이지를 활용해 공주만의 차별화된 볼거리 제공한다.



공산성 금서루 앞 연문광장에 설치된 무령왕 동상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수상 멀티미디어 쇼에서는 천상의 물길로 한류를 이끈 무령왕의 이야기가 미디어매핑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활용해 펼쳐진다. 금강신관광원에서는 '백제를 만나러 가는 문'을 연출한다.

3개 톨 구조물 안에서 다양한 백제를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아트관이 설치 운영된다.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애경도 올해는 더 아름답게 밤하늘과 금강을 수놓는다. 공산성에서는 미디어파사드와 레이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다채로운 웅진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연출하고, 금강과 미르섬에서는 백제유물을 형상화한 대형 오브제와 황포돛배 등으로 아름다운 백제의 밤을 밝히게 된다. 입장료 징수 시스템 개선에 당초 미르섬에 한해 받은 입장료를 행사장 전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주시민은 무료다.

최원철 시장은 "2023 대백제전을 통해 백제 역사문화는 물론 백제의 중흥을 이끈 무령왕을 새롭게 조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 대백제전'은 무령왕 서거 1500년, 성왕 즉위 1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 손현수 기자



양수댐 추진 반대 기자회견하는 구례 문척면 중산리 주민들

## "야생생물 터전" 구례 중산리 주민들, 양수발전소 추진 반대

전남 구례군 문척면 중산리 일부 주민들이 지역 양수발전소(양수댐)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구례 중산리 양수댐 건설에 반대하는 중기마을 주민들'은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수댐 추진 포기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한국중부발전과 구례군, 구례군 관계자는 "나차와 기술성을 고려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없는 곳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에서는 문척면 일원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마을 대표 설명회와 마을 주민 설명회, 타지역 발전소 견학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전소 공사에 통상 7년이 소요되고 공사비의 60~70%가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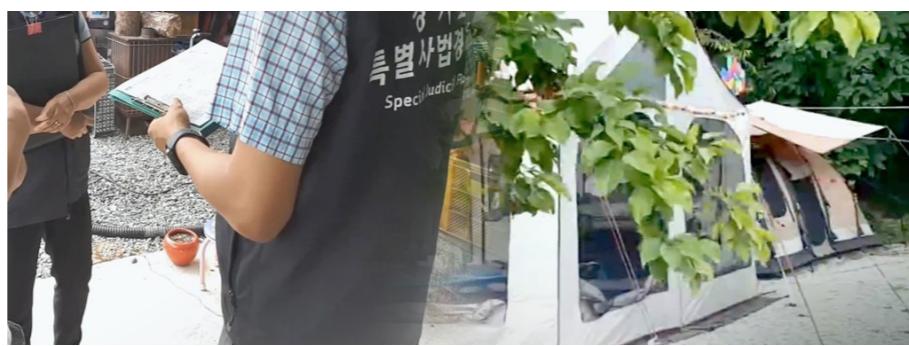
/ 송원기 기자

## 구례군 "1조원사업 지역 경제 긍정적…주민 의견 수렴 거쳐 결정"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 5월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계족산에 상부댐을, 중산천 하구를 막아 하부댐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1조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계족산에는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와 담비가, 중산천에는 수달이 산다"며 "양수댐이 들어서면 단풍길이 수몰되고 야생생물의 터전이 사라질 것이다. 중산천은 하부댐으로 물이 고여 썩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하부의 물을 상부로 끌어올렸다가



석한 가운데 '무허가 애영장 관리대책 간담회'를 열고 후속 방안을 논의한다. 도내 등록된 애영장은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이나 강원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황민규 기자

도는 시·군에서 관리 중인 640여곳의 애영장을 현장 점검하고자 산지, 농지, 해수욕장 등 각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다. 도는 우선 미등록 애영장 단속을 위해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모니

터링을 통해 의심 업체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애영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지 등 문제점에 대해 현장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등록 애영장은 등록을 거쳐 영업하도록 계도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다음 달 2일 제2형사에

서 관계 부서와 18개 시·군 담당자가 참

## 삼척시 어르신 이불 세탁, 기초단체장 일자리 공약 '우수상'



강원 삼척시는 202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26~27일 전남 순천시 국립순천대학교에서 열렸다.

시는 '행복한 일자리, 즐거운 노년, 함께하는 사회,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로 세 마리 토끼를 잡다'를 주제로 참가했다.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는 훌봄 및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의 이불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서비스다.

생활품 구매 대행·배달, 돌봄서비스, 우유 배달을 통한 훌봄 어르신 안부 확인 등도 함께 제공한다.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도계읍에 희망을 담는 빨래 바구니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2022년 3월 원덕읍에 2호점, 2023년 3월 미로면에 3호점을 각각 개소했다.

현재 근데면에 4호점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 수상은 사업에 함께 참여한 시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 '홍수 취약' 괴산댐…“다목적댐 전환” vs “비현실적 대안”

### 정치권, 댐 리모델링 촉구…환경단체는 수몰 문제로 반대

폭우 피해가 잦은 충북 괴산댐의 기능 전환을 요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과 송인현 괴산군수, 신송규 괴산군의장, 이태훈 충북도의원 등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우만 내리면 시한폭탄으로 변하는 괴산댐의 리모델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괴산댐이 유틀렸는데, 1980년 이후 물이 넘친 국내 댐은 괴산댐이 유일하다"며 "괴산댐을 이대로 둬가는 자칫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발전용 댐인 괴산댐은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비교해 유역면적은 4분의 1 정도로 넓지만, 총저수용량은 193분의 1에 불과해

폭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주변 주민들이 장마 때면 침수 걱정에 전전긍긍하는 일이 없도록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을 하는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곽명환 충주시의원도 지난 27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괴산댐은 치수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목적댐으로의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괴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다시 짓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 등이 참여하는 전국 댐연대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괴산댐 하류의 이번 홍수 피해는 괴산댐 월류 때문이 아니라 하천 수용 능력을 넘는 빗물이 일거에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 최경희 기자

**K-Bee Project**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K-Bee  
프로젝트

피겨 스타들의 달콤한 만남

피겨 스타 친환경 선수와 이해인 선수가 서울숲 속 K-Bee 도시 암봉장에서 달콤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꿀벌의 소중함을 배우고 직접 양봉 체험을 하며 홍장을 딴 두 선수 함께한 노력이 흥미로운 결과가 되도록 K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꿀벌의 생태계 회복에貢貢하겠습니다.

To BEE continued  
Korea Better  
KB금융그룹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혜인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

K-Bee 프로젝트  
KB금융그룹은 딜원숲 조성 및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ee 도시 암봉장 2호 '서울숲'  
어제도 KB금융그룹은 서울 양봉 체험을 위해 12인의 멤버로 구성된 두 번째 도시 암봉장을 서울숲에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ee KB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환전  
1초의  
마법



쉽고 빠른 환전, 원해?  
우리 WON해!

| 우리 WON 환전주머니 |

내가 원하는  
금융생활의 답

우리 WON

우리 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 해당서비스는 국민인 거주자 고객님에 한하여 이용 가능하며 환전시 우대율은 환전통화 및 WON뱅킹 로고인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 해당서비스 이용시간은 24시간 365일이나 은행시스템 점검시간 및 가상계좌 입금불가시간(23시~00시10분)은 일부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환전 신청시 해당통화의 현찰  
사실때 환율, 원화로 재환전시 해당통화의 현찰 파설때 환율이 적용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전주머니 현찰로 수령하실 때는 환전하신 통화의 현찰시재를 보관하고 있는 지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사용자의 AOS/IOS버전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우리WON뱅킹 앱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일부 디바이스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기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5000, 평일 09~18시, 주말/공휴일 제외) · 준법감사인 심의필 2023-5049(2023.06.12~2024.12.31)

# 뮤지컬 '삼총사' 9번째 시즌…박장현·이건명·후이 출연

9월 15일 한전아트센터서 개막…이달 대만서 공연



뮤지컬 삼총사 포스터와 출연진

뮤지컬 '삼총사'의 9번째 시즌이 다음 달 개막한다.

제작사 글로벌컨텐츠는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한전아트센터

에서 열리는 뮤지컬 '삼총사'에 박장현, 이 건명, 그룹 펜타곤의 후이 등이 출연한다.

고 2일 밝혔다.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파의 소설을

원작으로 2004년 체코에서 처음 뮤지컬로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2009년 초연한 뒤 9번째 시즌을 맞았다.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왕실의 총

사가 되길 꿈꾸는 달타냥과 삼총사 아토스, 아라미스, 포르토스가 국왕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밟히는 과정을 담는다.

삼총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파리로 향한 청년 달타냥은 박장현, 렌, 펜타곤 후이, SF9 유태양, DKZ 민규가 연기한다. 후이는 이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한다.

삼총사의 리더 아토스 역은 이건명·최 대철·김형균이, 유쾌한 로맨티스트 아라미스 역은 밴드 몽니의 김신의·포르테디 콰트로의 테너 김현수·신인선이 맡는다. 화끈한 성격을 보여주는 포르토스는 최오식·장대웅·조순창이 연기한다.

국내 초연부터 함께한 배우 신성우는 연출을 강봉훈과 함께 공동 연출을 맡았다.

'삼총사'는 9월 개막을 앞두고 오는 18~20일 대만 무대에 오른다.

대만 국립 타이중극장이 개최하는 행사에 초청받아 약 2천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이 공연에는 렌, 민규, 이건명, 김현수, 장대웅 등이 출연한다.

/ 임수진 기자



"낮은 더우니 밤에 즐겨요"

동해 망상해변에서 한여름 밤 축제



인, 신스, 행주 등 국내에서 가장 핫한 힙합 랩퍼의 공연과 EDM(Electronic Dance Music) 파티가 열린다.

또 오프닝 공연으로 비보이 퍼포먼스, 모델 쇼 등도 선보여 여름 밤바다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멋진 망상의 여름을 온몸으로 만끽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7시 30분부터는 감성적인 분위기의 재즈&팝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비리온 김동규, 팝 소프라노 한아름과 복지은, 성악 양상을 라클라쎄, DK콘서트 양상률 등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열대야로 친환경객들에게 시원한 밤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강원 동해시가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 줄 열정과 감동 넘치는 특별한 여름 행사를 마련했다.

2일 시에 따르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체육 문화프로그램인 '동해 망상 비치 페스티벌 힐바다-힐해(海)' 행사를 4~6일 망상해변에서 개최한다.

'자유로움 속 힐링의 파도를 타다'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힙합, 재즈와 클래식이 어우러진 축제를 한여름 밤에 펼친다.

4~5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원슈타

/ 송현수 기자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깔끔하게 카누답게

**KANU**  
BARISTA

A KANU Barista coffee machine is shown next to a tall glass filled with iced coffee. A person is reclining on a lounge chair in the background, holding a coffee cup.

카누 바리스타  
아이스 전용 캡슐

## 시대를 앞서 가는 시선

앞만 바라보는 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큰 그림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한화생명의 시선은  
모든 방향으로 향합니다

**한화생명**



[www.hanwhalife.com](http://www.hanwhalife.com)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 류현진 “선발 복귀한 것만으로 만족…다음번엔 이기겠다”

“변화구 제구가 좀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

426일 만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경기에 선발 등판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36)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블루제이스와의 홈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복귀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발 등판해 5회 이상 던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투구 내용에 대해선 “오늘은 체인지업과 변화구 제구가 좀 안 좋았지만 전체적으로는 괜찮았다”면서 “구속은 1~2마일 정도 더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이날 커브가 좋았다고 말했다.



팔꿈치 수술 후 1년 2개월만에 복귀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투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체인지업에서 실투가 많이 나왔다”고 인정했다.

류현진은 3-3으로 맞선 6회초 선두 타

자 거너 헨더슨에게 우월 홈런을 내준 데 대해서도 체인지업이 원하는 곳으로 제구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 타자(헨더

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해결)해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복귀전에 대한 감상을 묻는 질문에는 “긴장은 많이 됐지만, 재밌었다”고 답했다.

류현진은 이날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 어깨 수술 이후 복귀를 준비하는 것보다 몸 상태가 편안했다는 것이 류현진의 설명이다.

류현진은 이날 적지 않은 한국 팬이 복귀전이 열린 로저스 센터를 찾아 응원하는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다음부터는 꼭 이길 수 있도록, 이겨서 더 기분좋게 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오세근 ‘수비를 뚫고 슛’

**프로농구 2023-2024시즌, 10월 21일**

**인삼공사 vs SK 경기로 개막**

프로농구 2023-2024시즌이 10월 21일 개막한다. KBL은 2023-2024시즌 정규리그를 10월 2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는 경기 일정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2022-2023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대결한 안양 KGC인삼공사와 서울 SK 경기다.

지난 시즌 인삼공사를 우승으로 이끈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SK로 이적한 오세근은 첫 경기부터 ‘천정’ 인삼공사를 상대하게 됐다.

해마다 12월 31일 밤에 열리는 ‘농구영

신’ 매치는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대구 경기로 열리며, 울스타전은 2024년 1월 14일에 개최된다.

정규리그는 월요일 1경기, 화·목·금요일 2경기씩, 주말은 3경기씩 진행된다.

수요일은 인삼공사와 SK가 나가는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에 따라 KBL 정규경기가 열리지 않고, 동아시아 슈퍼리그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2024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2025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일정에 따라 리그 일정을 잠시 쉬어간다.

/ 강희준 기자

## 2루수로 돌아온 김하성, 멀티히트로 쐐기타·시즌 22호 도루



내야 안타를 치고 전력 질주한 김하성

홈을 파고들다가 포수 무릎에 부딪혀 오른쪽 어깨를 다친 김하성이 두 경기 만에 2루수로 출전해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김하성은 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쿠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로키스와 벌인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2루수로 나와 5타수 2안타를 때렸다.

김하성은 8경기 연속 안타를 쳐 시즌 타율을 0.281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31일 어깨 통증으로 일찌 경기를 마치고 전날에는 지명 타자로 나선 김하성은 이날에는 원래 자리인 2루로 돌아왔다.

1회 삼진, 3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김하성은 1-1인 5회 1사 1, 2루에서 빗맞은 안타로 출루해 만루로 기회를 이었다.

3루수 쪽으로 느리게 굴러가던 타구를 투수 피터 램버트가 잡았지만, 1루에 던지기엔 너무 늦었다.

이 찬스에서 샌디에이고는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땅볼과 후안 소토의 중월 스리런 홈런으로 4점을 뽑았다.

김하성은 7회에는 3루수 땅볼에 그쳤다. 샌디에이고는 5-4로 쫓긴 8회 소토의 이 경기 두 번째 중월 홈런으로 1점을 보태 6-4로 승기를 잡았다.

이어 트렌트 그리셤의 중전 적시타로 7-4로 달아난 9회초 1사 1, 2루에서 김하성이 다시 타석에 등장했다.

김하성은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안타를 쳐 시즌 40번째 타점을 수확했다. 곧바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2루를 훔쳐 시즌 22번째 도루도 기록했다.

이제 김하성은 도루 1개를 보태면 2010년 추신수(현 SSG 랜더스)가 남긴 역대 한국인 타자 한 시즌 최다 도루(22개) 기록을 13년 만에 깬다.

샌디에이고는 8-5로 이겼다.

/ 신재용 기자

## 프로축구 울산, 흥명보 감독과 2026년까지 3년 연장 계약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흥명보 감독과 2026시즌까지 함께 하는 3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고 2일 발표했다.

동북고와 고려대 출신 흥명보 감독은 2021년 울산 지휘봉을 잡았고, 지난해 울산에 17년 만에 K리그 우승컵을 안겼다.

흥명보 감독은 “그동안 팀을 파악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울산이 K리그를 대표하는 리딩 클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울산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울산은 “구단과 선수단, 팬 모두가 자신감을 갖고 K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를 압도하는 우승 왕조, 유소년 선수 육성과 팬 프렌들리의 명가가 되겠다는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번 계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 한형준 기자

## K리그1 수원 카즈키, 팬들이 뽑은 7월 MVP 선정



카즈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의 ‘일본인 미드필더’ 카즈키(등록명·본명은 고즈카 가즈키)가 수원 팬들이 뽑은 ‘도이치 모터스’ 7월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수원은 2일 “카즈키가 지난달 24일

부터 사흘 동안 구단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한 팬 투표에서 총 1천 918표 가운데 가장 많은 1천 862표를 받아 7월 MVP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적시장을 통해 수원에 합류한 카즈키는 7월 치러진 5경기 중 4경기에 출전해 중원에서 수준 높은 연계 플레이로 득점의 기점이 되는 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게 구단 설명이다.

카즈키는 “아직 경기를 많이 뛰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동료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은 플레이들이 나왔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 진성훈 기자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Yes 문경

# 뷔, BTS 일곱번째 솔로 주자로 앨범 낸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뷔의 일곱 번째 솔로 주자로 새 앨범을 작업 중이다. 앨범 작업에는 걸그룹 뉴진스를 발굴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제작 총괄을 맡아 힘을 보탠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일 “뷔가 현재 첫 번째 솔로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며 “뷔의 제안으로 민희진 대표가

## “떨리지만 행복…제 취향 고스란히 들어간 앨범”

음악, 안무, 디자인, 프로모션 등 앨범 제작 전반을 진두지휘한다”고 전했다.

민희진 대표는 “지난해 말 (뷔의 솔로 앨범 제작) 제안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스케줄 때문에 망설였지만, 뷔의 태도·열정, 그리고 잘 몰랐던 그의 음색이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음악”이라며 “뷔의 취향을 반영한, 동시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음악들로 준비했다. 익숙한 스타일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과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악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뷔는 “떨리지만 행복하다”며 “제 취향이 고스란히 들어간 앨범이다. 볼거리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미(방탄소년단 팬) 분들이 행복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했으니 기대해줬으면 좋겠다”며 “방탄소년단 뷔와는 또 다른, 솔로 가수 뷔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뷔는 그간 솔로곡 ‘스티그마’(Stigma), ‘이너 차일드’(Inner Child) 등을 통해 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인기를 끌었다. 뷔 솔로 앨범 발매일 등은 추후에 공개된다. / 양희진 기자

## ‘더 문’·‘비공식작전’ 오늘 개봉…밀수와 3파전 시작

### ‘밀수’ 예매율 부동의 1위…다음주엔 ‘콘크리트 유토피아’ 출격

김용화 감독의 SF 신작 ‘더 문’과 김성훈 감독의 버디물 ‘비공식작전’이 2일 개봉하면서 최근 흥행몰이 중인 류승완 감독의 ‘밀수’와 3파전을 시작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밀수’는 예매율 21.2%, 예매 관객 수 11만4천여 명으로 예매율 순위 정상을 지키고 있다.

‘더 문’은 예매율 16.8%(예매 관객 수 9만여 명)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를 ‘비공식작전’(예매율 14.3%·7만7천여 명)이 바짝 추격하는 중이다.

‘더 문’과 ‘비공식작전’이 이날 동시에 극장에 걸리면서 독주 체제를 이어온 ‘밀수’와 3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는 전날 24만6천여 명을 더해 누적 관객 수 222만명을 돌파했다.

세 영화는 각기 다른 장르를 내세워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여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밀수’는 1970년대 바닷가 도시 군천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해녀들의 범죄 활극이다. 김혜수·엄정아·조인성·박정민·고민시 등이 출연했다.

설경구·도경수가 주연한 ‘더 문’은 한



영화 ‘더 문’·‘비공식작전’ 포스터

국 영화로는 최초로 유인 달 탐사선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우주와 달, 우주선 등이 배경이다.

모로코에서 많은 분량을 촬영한 ‘비공식작전’은 납치된 전직 외교관을 구하려는 외교관과 현지 택시 기사의 분투를 그렸다. ‘신과 함께’에서 호흡을 맞춘 하정우와 주지훈이 버디 연기를 선보인다.

오는 9일에는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해 극장가 여름 대전에 합류한다. 개봉까지 1주가 남았지만,

9.5%(5만여 명)로 예매율 순위 5위에 올라 있다.

이 영화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황궁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배우 이병헌·박서준·박보영이 호흡을 맞췄다.

이어 한 주 뒤인 15일에는 정우성이 연출하고 주연한 ‘보호자’와 유해진·김희선이 나오는 이한 감독의 코미디 영화 ‘달싹’이 극장에 돌아온다.

이번 무대는 위버스 라이브와 유튜브 생중계로도 만날 수 있다. / 임경희 기자



## TXT, 美 롤라팔루자 헤드라이너 출연…제이홉 이어 두 번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가 오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롤라팔루자에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출연한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일 밝혔다.

롤라팔루자는 폴 매카트니, 메탈리카, 콜드플레이 등이 출연한 적 있는 대규모 음악 축제다. 올해 축제에는 벨리 아일리시, 켄드릭 라마, 라나 멜 레이 등이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K팝 그룹 최초 이자 K팝 아티스트 중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에 이어 두 번째로 헤드라이너 무대를 밟는다. 이들은 지난 달 밤에 한 서

며송 ‘두 잇 라이크 댓’(Do It Like That) 무대를 쳐어 공개하며 미국의 래퍼 코이

르레이와의 협업 무대도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위버스 라이브와 유튜브

생중계로도 만날 수 있다. / 임경희 기자



그룹 에스파

## 에스파, 13일 LA서 콘서트…신곡 ‘베터 립스’ 최초공개

그룹 에스파가 오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콘서트 ‘에스파 라이브 투어 2023-싱크: 하이퍼라인’(aespa LIVE TOUR 2023 ‘SYNK : HYPER LINE’)을 연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일 밝혔다.

에스파는 이번 콘서트에서 오는 18일 발매하는 영어 싱글 ‘베터 립스’(Better

Things)의 무대를 최초로 공개한다. ‘베터 립스’는 여름과 어울리는 청량한 퍼커션 연주와 독특한 리듬이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의 댄스곡이다.

에스파는 이번 LA 콘서트를 시작으로 미국과 남미, 유럽 지역 총 14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를 펼친다.

/ 권지안 기자

## 제19회 현인가요제, 4~6일 부산 송도해수욕장서 개최

작고한 부산 출신 국민가수 현인을 기리고 신인가수를 발굴하기 위한 현인가요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송도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서구가 후원하는 현인가요제는 2004년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는다.

4일에는 고인을 추모하는 ‘선생님 그립습니다’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5일에는 원로가수들의 ‘그 시절 그 노래’와 코미디언 이용식, 가수 백수정 진행으로 15개 팀이 기량을 겨루는 최종 예선 무대가 열린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방송인 김병찬, 가수 향기가 진행하는 현인가요제 본선이 개최된다. / 김성현 기자

## 세계연합신문

[www.wunionnews.com](http://www.wunion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조영광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희진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LG HelloVision

Hello rental

#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고객이야기 # 안심로밍 # 제로프리미엄



“**해외에서는  
마음이 놓여야  
잘 다닐 수 있으니까!  
U+안심로밍은 필수죠~**

예전엔 해외 나갈 때 유심만 생각했었는데,  
해외에서 인증 필요할 때 문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당황했던 후로는 꼭 U+안심로밍 해갑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지 모를 만큼 데이터 속도, 품질,  
문자도 완벽하고, 시간대랑 기간만 신청하면  
무제한 편하게 쓸 수 있어 좋아요. 공항 갈 때  
신청도 카톡으로 되니까 말 그대로 안심로밍이죠!

‘유플러스 10년 차 고객 김병채님’



QR코드 스캔하고 김병채님의  
와이낫 스토리 더 보러 가기

이런 생각, 김병채님의  
**WHY  
NOT?**

유플러스 안심로밍